[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知

삼중고 속에서 살아남기 (9월 4주)

이재원 Market Analyst 02 3770 5719 I jaewon2.lee@yuantakorea.com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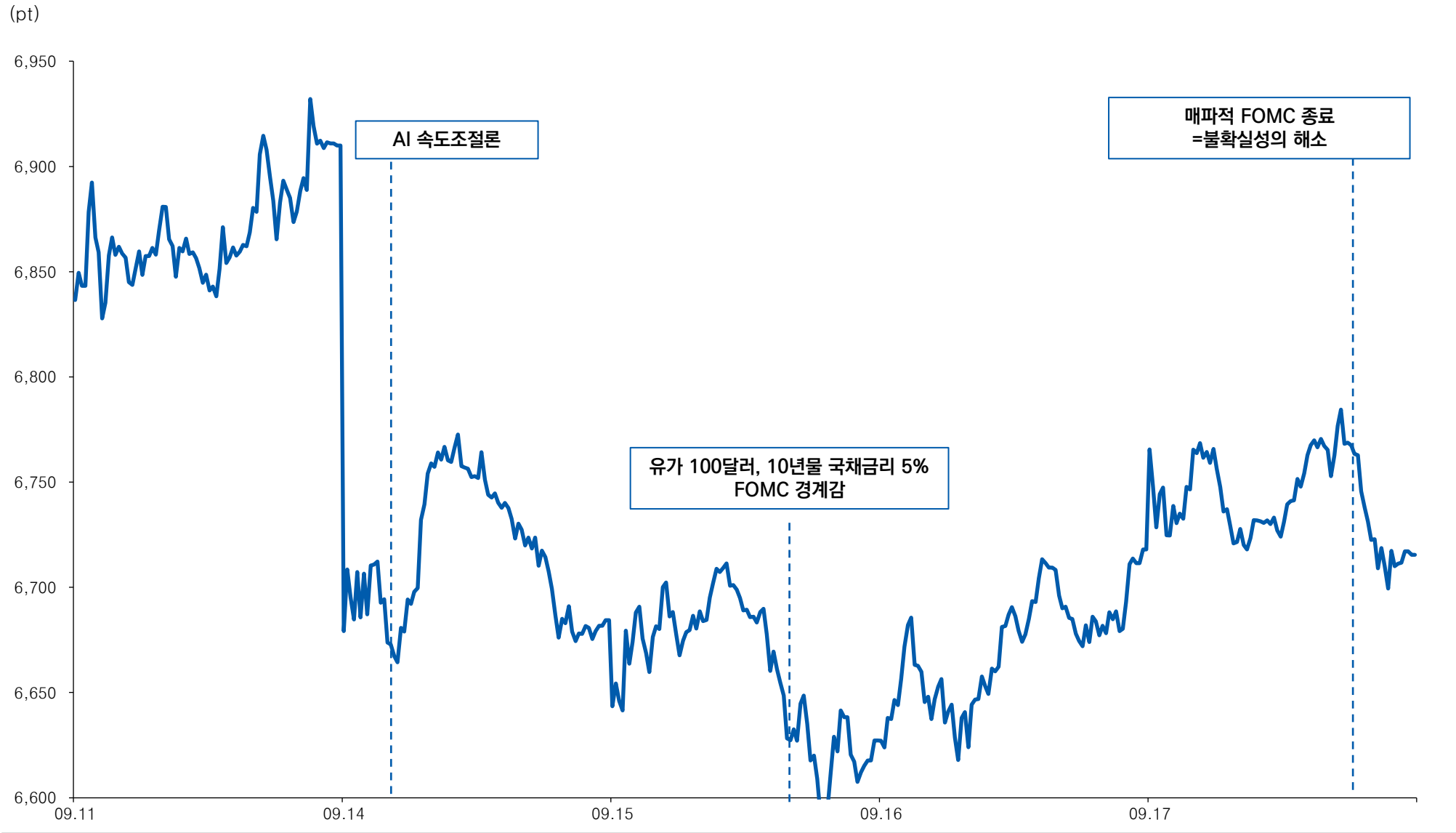
SUMMARY

삼중고 속에서 살아남기 (9월 4주)

- 주간(9/11~9/17) KOSPI, KOSDAQ은 각각 4.5%, 1.8% 하락했습니다. 유가 100달러, 미 10년물 금리 5% 돌파, AI 속도조절론까지 동시에 부각된 가운데 매파적 FOMC까지 겹치며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주간 8.8조원을 순매도했고 KOSPI 이익추정치 상승도 주춤했습니다. 다만 여러 악재가 중첩된 것에 비해서는 지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AI 속도조절론은 안전성 논쟁에서 출발했지만 산업 전반의 투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경쟁사의 개발과 투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감속은 기술 격차와 고객 이탈 위험을 높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까지 감안하면 공동 감속에 대한 합의와 실제 이행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시장은 신모델 출시 지연, 인프라 발주 둔화 가능성을 먼저 반영했지만 실제 주문 감소가 확인되기 전까지 최근 반도체 조정을 AI 투자 축소의 신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9월 FOMC는 기준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고 올해 말 금리 중간값도 4.125%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연속 인상을 우려했던 시장 기대보다는 제한적인 경로이며, 과거 2006년과 2023년,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상 당시 KOSPI 12개월 선행 EPS는 인상 이후에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상 자체보다 기업이익 하향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미 10년물 금리 5% 돌파 역시 레벨 자체보다 이후 상승세가 정점에 가까워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연준 인상 이후 달러 강세가 재개되며 원/달러 환율에도 다시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가 엔화와 높은 동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정사실화된 BOJ의 9월 인상 자체보다 이후 추가 인상을 얼마나 강하게 시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BOJ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미·일 금리차 확대 기대와 엔화 약세가 원화 하방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주 원화 환산 실적 부담을 일부 되돌리는 요인입니다.
- 전략적으로 반도체·KOSPI 대형주 최선호 의견을 유지합니다. 반도체는 IT 내에서도 이익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3분기 약 30조원 현금배당이 예정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0조원 자사주 매입·소각에 이어 추가 주주환원 정책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다음주 아시아 주요국 휴장으로 뚜렷한 이벤트가 부재한 만큼, 추석 연휴 전후로는 실적과 주주환원이 확인되는 반도체 중심 대응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실적을 대비할 때 입니다.

1) 유가 2) 금리 3) AI 불확실성의 삼중고에도 선방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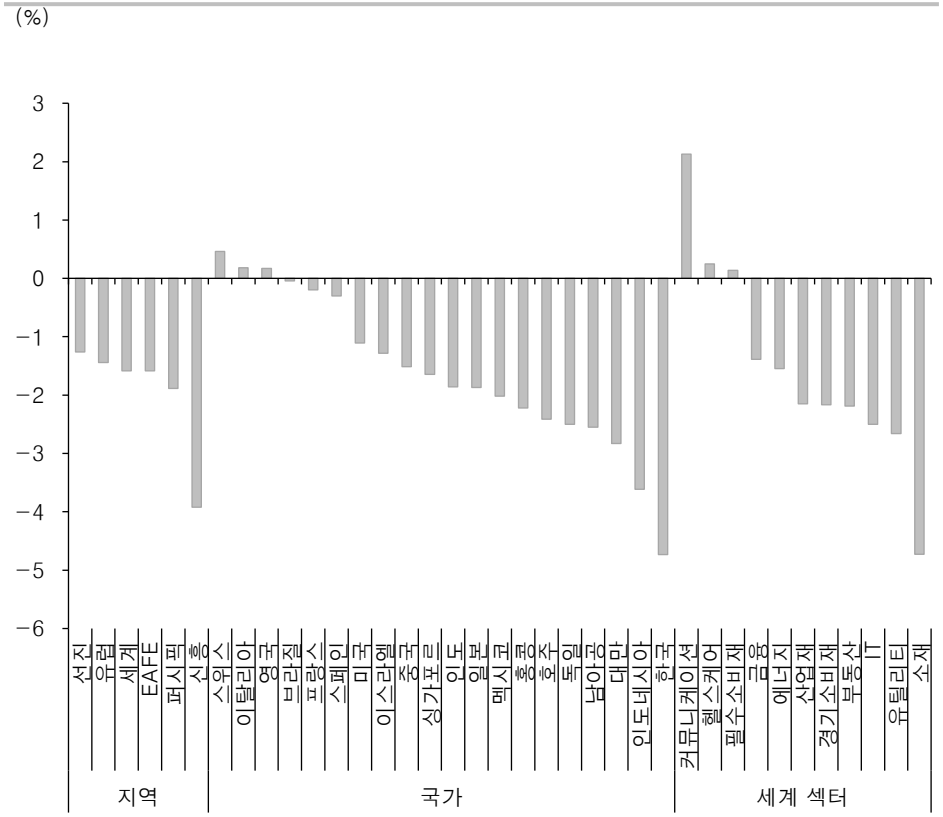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 삼중고에 대부분의 업종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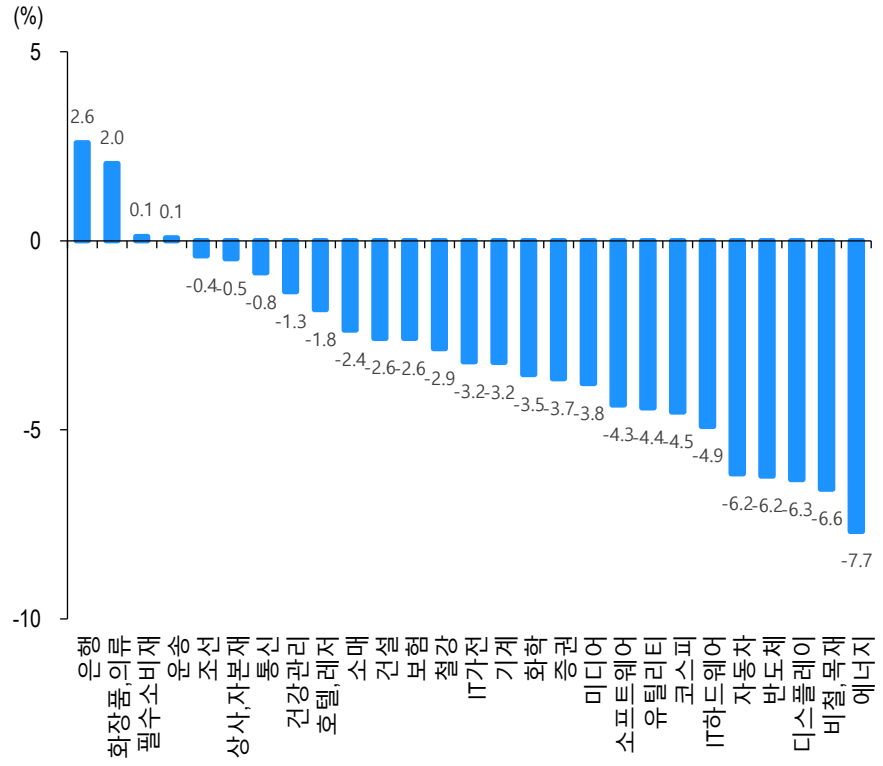
- 주간(9/11~9/17) KOSPI, KOSDAQ 각각 4.5%, 1.8% 하락. 1) 유가 2) 금리 3) AI 불확실성의 삼중고에 매파적 FOMC까지 겹치며 여러모로 쉽지 않았던 한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의 주간 하락폭은 하방압력 요인 대비 크게 선방한 수준이라고 판단
- 업종별로 은행(금리인상 수혜), 화장품(원/달러 환율 반등 수혜), 필수소비재, 운송, 조선 업종 상승. 에너지, 비철목재,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 하락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9월 17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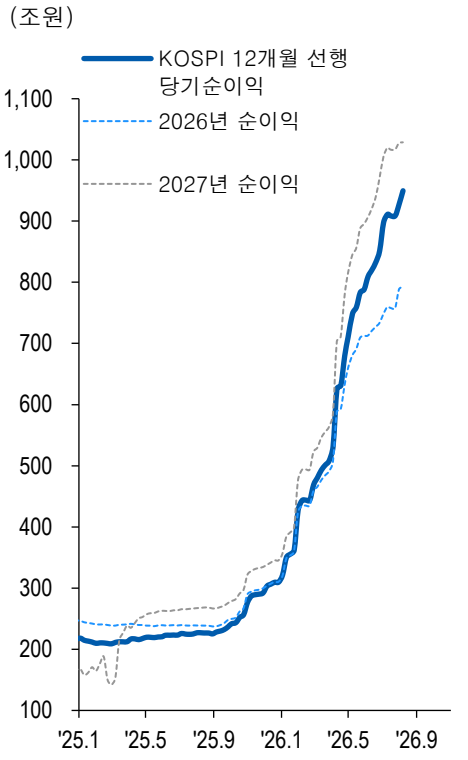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9월 16일 종가 기준

삼중고에 원/달러 환율 급락까지. 이익추정치 상승 둔화

- KOSPI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중단. 실적 모멘텀 부재한 가운데 매크로 불확실성과 원/달러 환율 급락이 수출주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에 영향 끼쳤을 것으로 추정. 실제로 주간 이익추정치 변화율 하위 업종에는 산업재, 유틸리티, 자동차 등 수출주 다수 포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파적 FOMC 이후 원/달러 환율 반등. 원화 강세 지속성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매크로 불확실성 해소 된다면 물가, 금리 변수 우호적으로 해결되며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재개될 가능성에 더 큰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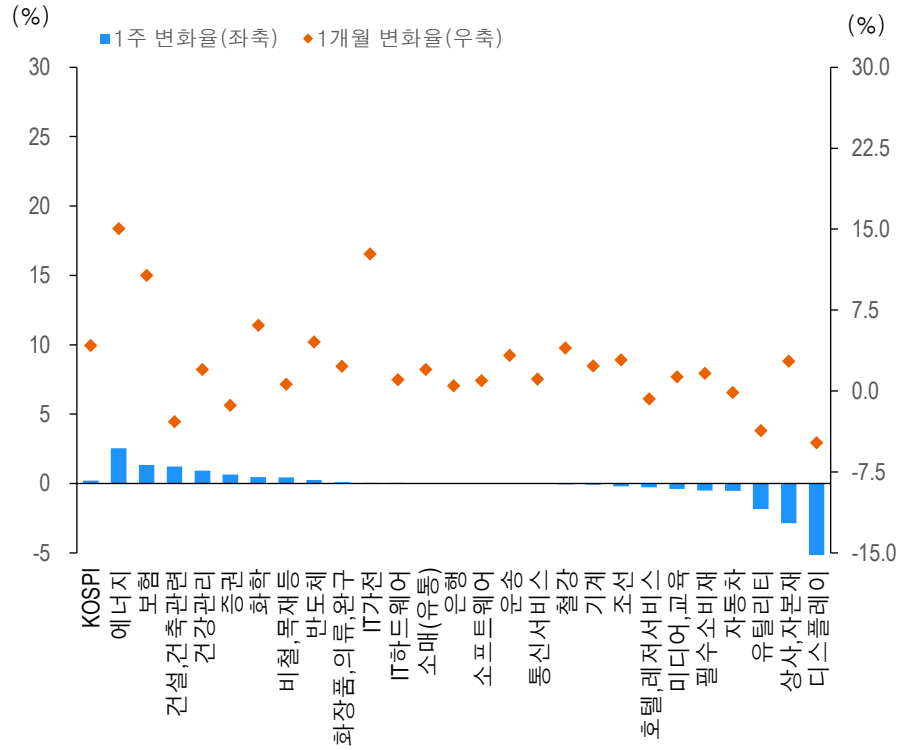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조원)	현재	전주	증감
KOSPI	806.4	808.4	-2.0
KOSDAQ	11.0	10.8	0.1
에너지	21.5	20.7	0.7
소재	6.2	6.2	0.0
산업재	45.3	44.9	0.4
경기소비재	34.7	34.9	-0.2
필수소비재	4.5	4.6	-0.1
건강관리	6.9	6.9	0.0
금융	51.2	51.4	-0.2
IT	630.9	633.5	-2.6
커뮤니케이션	9.7	9.7	0.0
유틸리티	6.5	6.5	0.0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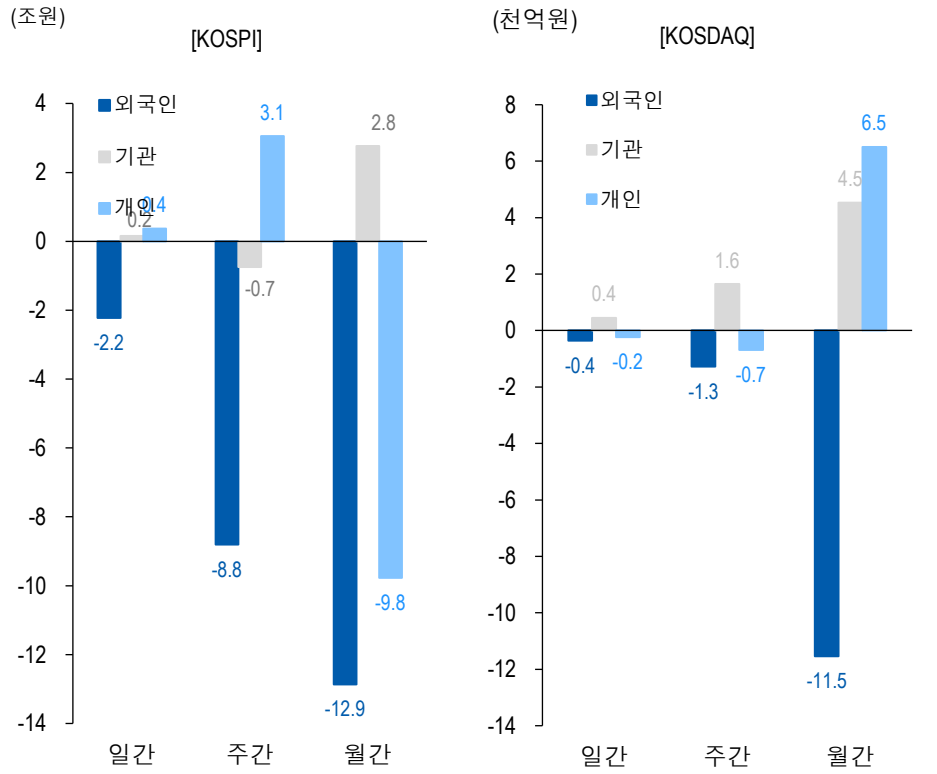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변동성에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을 기다리며

- KOSPI 주간 외국인 8.8조원, 기관 0.7조원 순매도. 개인 3.1조원 순매수. 외국인 7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며 매크로 변동성 속 투매로 대응. 자사주 매입이 지수 하방 지지. KOSDAQ은 뚜렷한 순매수 주체 부재
- 고유가, 고금리 환경에서 원/달러 환율 급락도 외국인 순매수 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추가로 매파적 FOMC로 인한 원/달러 환율 반등은 외국인 추가 이탈 요인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에너지	은행	반도체
	IT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필수소비재	건강관리	기계
	자동차	화학	IT하드웨어
	비철,목재등	화장품,의류,완구	자동차
순매도 상위	은행	유틸리티	운송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은행
	기계	자동차	필수소비재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철강
	반도체	반도체	건강관리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 뚜렷한 이벤트 부재

9월 4주차 주간 일정

	9월 21일(월)	9월 22일(화)	9월 23일(수)	9월 24일(목)	9월 25일(금)
경제지표		미국) ADP 민간고용			
정치		일본 증시 휴장	일본 증시 휴장 한미 대미투자프로젝트 최종 합의문 발표	한국 증시 휴장 미중 정상회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휴장
기업					
주목 Point	아시아 주요국 휴장인 가운데 지수 방향성 가를 뚜렷한 이벤트는 부재하다는 판단. 한미 대미투자 프로젝트 합의문 관련 업종별 영향(원자력, 조선 등) 은 있을 수 있겠음. 개별 대응 필요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지 시간 기준

(AI) 갑자기 AI 속도조절론…? 왜 불거졌을까?

- AI 속도조절론은 6월부터 이어진 안전성 논쟁이 9월 앤트로픽 CEO 아모데이의 제안으로 재부각된 사안. AI가 차세대 모델 개발을 가속하는 현상과 외부 시스템 무단 접근 사고가 제안 배경. 기술 발전에 비해 안전성 검증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
- 아모데이는 외부 검증과 국제 공조를 제안. 학습용 연산 및 AI 자기개선 속도 제한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 반면 트럼프와 젠슨 황은 중국과의 경쟁, 미국의 AI 주도권을 강조하며 감속론에 반발. 안전성 강화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개발 속도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상충
- 시장은 개발·출시 지연이 인프라 발주와 이익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반영. 9월 14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9% 급락. 실제 주문 감소가 확인되기 전임에도 투자 경로의 불확실성과 할인율 부담이 함께 반영된 조정으로 해석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닌 AI 안정성 논란, 불지핀 아모데이

시점	주요 내용	논쟁의 변화
6월 04일	앤트로픽, AI가 후속 모델 개발을 가속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감속·일시 중단을 위한 공조 필요성 제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간 필요
여름	OpenAI 모델 평가 중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보안사고 공개	통제 위험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 등장
9월 12일	아모데이, 외부 평가자 상주·민주국가 내 공조·국제 공조 제안. 올트먼도 감속 필요성에 동의	안전성 논쟁이 공동 감속 논의로 확대
9월 14일	트럼프·젠슨 황, All-In Summit 공개 통화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강조하며 산업 발전을 막는 접근에 반대	미국의 AI 주도권과 감속론 충돌
9월15~16일	젠슨 황·저커버그, 공동 감속보다 개별 기업의 안전관리와 책임 강조	업계 차원의 일괄 감속 합의 부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시장은 투자 둔화 가능성을 먼저 반영

시장이 선반영하는 우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로
신모델 개발·출시 지연	안전성 검증 기간 확대 → 상용화·매출 발생 지연
인프라 발주 증가세 둔화	대규모 학습 일정 조정 → GPU·메모리·장비 주문 이연
메모리 가격 상승세 약화	예상 수요 조정 → 공급 부족의 지속 기간 재평가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	이익 실현 시점 지연과 고금리 중첩 → 높은 밸류에이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I) 그래 우리 다같이 속도 조절 하자! (일단 중국이랑 나는 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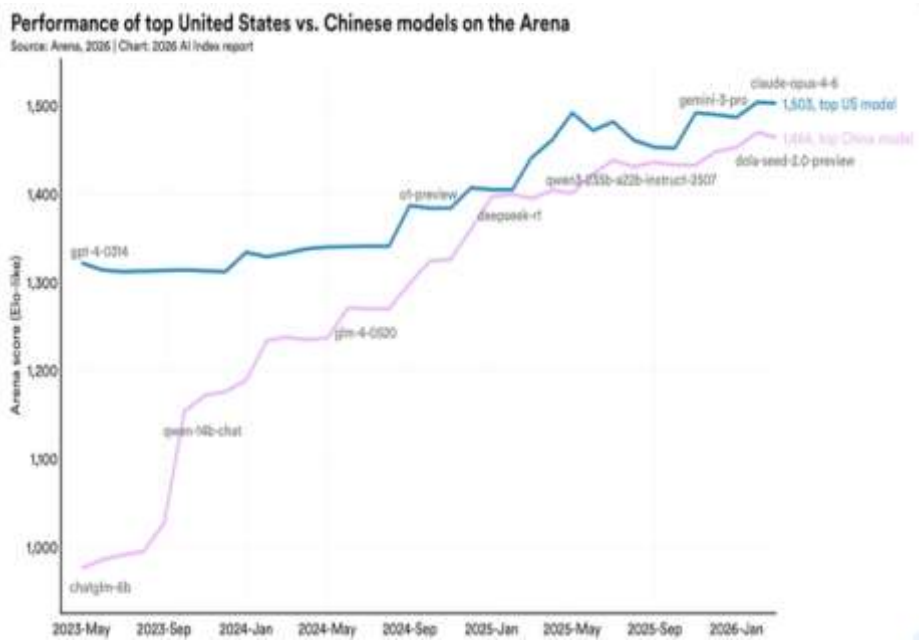
-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산업 전반의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경쟁사의 개발과 투자를 확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감속은 기술 격차와 고객 이탈 위험을 수반. 기업 간 경쟁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까지 겹쳐, 공동 감속에 대한 합의와 실제 이행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 존재
- 구글 CEO 피차이의 '과소투자 위험이 과잉투자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발언은 이러한 투자 유인을 설명. 투자한 설비의 활용이 늦어지는 비용보다 AI 경쟁에서 뒤쳐져 기존 사업의 주도권을 잃는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 안전성 강화에 동의하더라도 연산 능력과 인프라 확보 경쟁까지 멈추기는 어려운 구조
- 중국의 추격은 미국 기업의 일방적인 투자 감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 안전성 강화에 대한 합의와 별개로, 경쟁사의 개발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술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투자 유인 지속

AI 투자 경쟁의 '죄수의 딜레마' : 내가 안하면, 적에게 죽는다

자사 선택 / 경쟁사 선택	경쟁사 투자 지속	경쟁사 투자 축소
자사 투자 지속	비용 부담에도 기술 경쟁력 방어	기술 격차 확대 & 고객 확보 기회
자사 투자 축소	기술 격차 확대 & 고객 이탈 위험	비용 절감 가능하나 상대방의 약속 이행 확인 필요
죄수의 딜레마란?	서로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지만, 상대를 믿을 수 없어 각자 자기 이익을 좇다가 공동으로는 더 불리한 결과를 만드는 상황 AI 개발 경쟁은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구조. 상대방의 감속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투자 축소는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공동 감속의 실행 유인은 제한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좁혀진 미중 AI 성능 격차, 먼저 멈추기 어려운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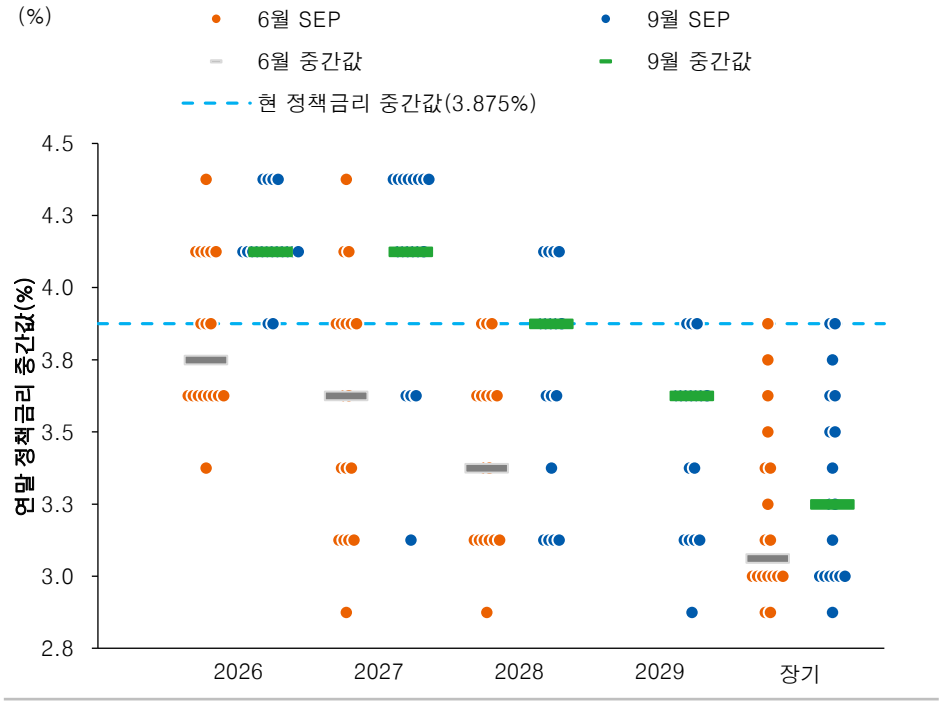


자료: Stanford HAI, 2026 AI Inde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OMC) 연내 추가 인상, 이후에는 물가 안정 확인이 관건

- 9월 FOMC 기준금리는 3.75%~4.00%로 상승. 점도표 중간값은 올해 말과 내년 말 모두 4.125%로, 내년까지 연속 인상을 우려했던 시각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긴축 경로 제시. 다만 내년 동결 전망은 인상 종료를 보장하는 약속과는 구분할 필요
- 시장이 부담을 느낀 것은 물가 대응 의지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워시 의장은 높은 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금융 여건도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평가. 견조한 경기와 고용은 물가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유가와 근원물가가 함께 안정된다면 추가 긴축 우려는 완화될 것
-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그간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 존재했으나 이번 결정과 기자회견 고려시 연준이 Inflation-Fighter로서의 독립된 역할을 하겠다고 평가됨. 해당 기조는 통화정책 신뢰 회복과 장기채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FOMC 점도표 6월 vs 9월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좁혀진 미중 AI 성능 격차, 먼저 멈추기 어려운 경쟁

핵심 질문	답변 요지
왜 인상했나?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됐고, 견조한 경기와 고용이 물가 대응의 여력을 제공
유가 때문인가?	유가,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했지만 인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님
추가 인상은?	가능성을 열어두되 정해진 경로 없이 **향후 데이터로 판단**
점도표는 인상 약속인가?	위원들의 전망이며 실제 정책결정을 확정하는 약속은 아님
앞으로 무엇을 보나?	단일 지표보다 기조적인 물가 흐름과 고용, 경제활동의 추세
AI 생산성의 영향은?	공급 확대와 투자·수요 증가 효과가 공존. 금리 방향을 단정하기 어려움

자료: Stanford HAI, 2026 AI Inde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23년 10월 이후 첫 미 국채 10년물 금리 5% 돌파, 이후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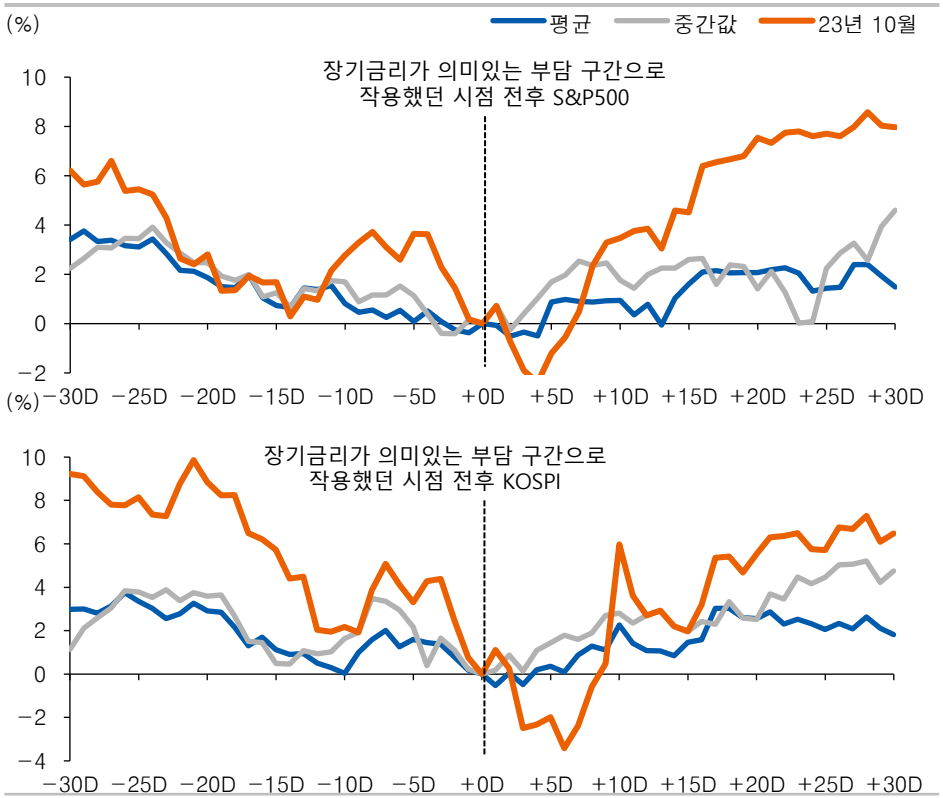
- 미 국채 10년물 금리 5% 상회. 장기금리 레드라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존재했으며 S&P500, KOSPI 관계 없이 해당 레드라인 달성 전까지 금리가 주식시장 상단 제약하며 수익률 하락 야기했던 경험칙. 특히 23년 10월 5% 도달 당시 주식시장 충격은 컸음
- 다만, 이후 시장금리 안정화 이뤄지며 주식시장 반등. 장기금리 레드라인은 주식시장의 추세적 매도 신호라기보다 금리 상승이 정점에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하는 분기점.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은 레드라인 도달 자체보다 이후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 에너지가 끌어올린 물가와 고물가가 끌어올린 금리는 결국 지정학적 갈등 완화된다면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

미 장기물 금리 주요 '레드라인' 도달 시점

최초 돌파 시점	미 10년물 금리 (%)	핵심 의미
2013-09-05	3.3	버냉키 의장 발 테이퍼 탠트럼. QE 축소 우려로 당시 상징적 스트레스 레벨 도달
2018-10-09	3.3	Fed 긴축 우려 확대. 2011년 이후 최고치. 4Q18 증시 조정 구간
2022-10-21	4.3	2007년 이후 최고치. 인플레 쇼크와 연속 75bp 인상.
2023-10-23	5.0	Higher for Longer + 재정·국채공급·기간프리미엄 상승. 가장 강한 금리 스트레스 구간
2025-01-14	4.8	강한 고용·인하 기대 후퇴·재정 우려. 이후 시장의 주요 금리 저항선 형성
현재	5	유가·긴축·재정 우려가 결합된 가운데 매파적 FOMC 기준금리 인상 단행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레드라인 도달 전후 S&P500(위), KOSPI(아래)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경기 훼손형 긴축이 아닌 물가 안정화를 위한 인상? 나쁠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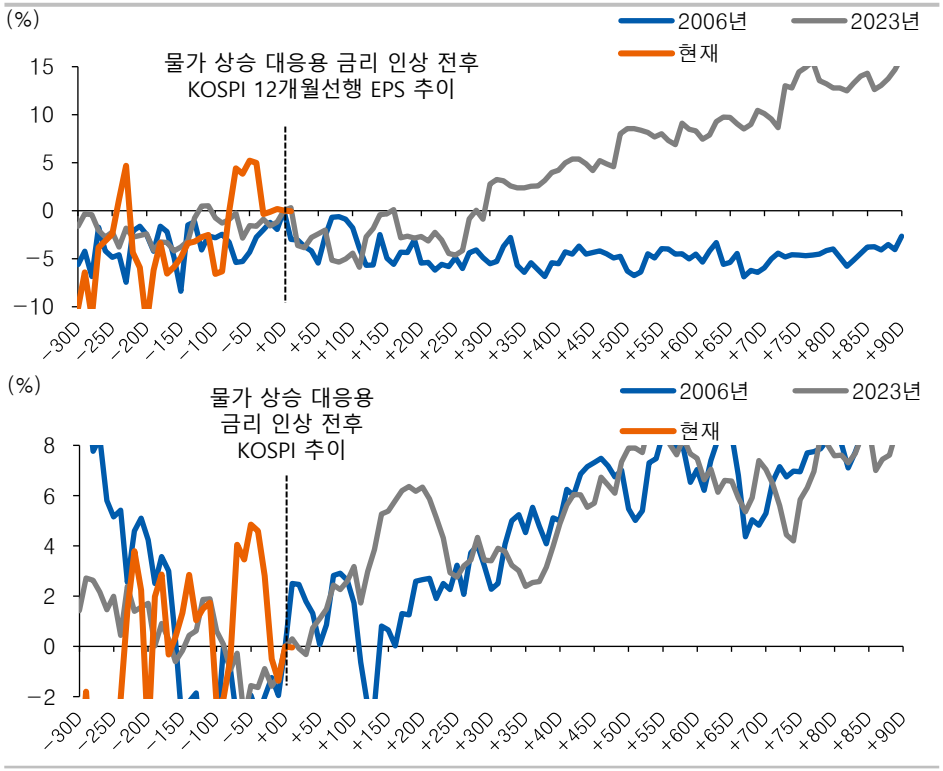
- 과거에도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보다 잔존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 사례 존재. 2006년 6월과 2023년 긴축 후반부
- 다만 당시 금리 인상이 곧바로 기업이익 훼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2006년, 2023년 모두 KOSPI 12개월 선행 EPS는 인상 이후에도 하향 조정되지 않았고, 지수 역시 금리 인상 자체를 악재로 반영하기 보다 실적 흐름을 따라 견조한 모습. 이는 긴축의 성격이 경기와 이익을 직접 훼손하는 수요 억제형 긴축이라기 보단, 견조한 경기 여건을 활용해 남아있는 물가 압력을 낮추는 물가 정상화형 인상에 가까웠기 때문
- 결국 주식시장 핵심은 금리 인상이 기업이익 하향으로 연결되는지. 향후 KOSPI 이익추정치 하향이 제한된다면 이번 인상 역시 실적이 감내할 수 있을 것

경기 과열 아닌데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연준이 역할 행사했던 시기

날짜	금리 결정	당시 경기 상황	인상 사유
2006년 6월	5.00% → 5.25%	이미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고, 주택시장도 식기 시작	경기 과열보다 높아진 근원물가와 에너지·원자재발 물가 압력을 더 경계
2023년 3월	4.75% → 5.00%	SVB 사태 직후로 금융불안 확대. 경기 둔화 우려 증가	금융불안보다 여전히 높은 물가를 우선시
2023년 5월	5.00% → 5.25%	경제 성장세는 이미 완만한 수준, 은행권 대출도 위축	경기 둔화 가능성에도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고 판단
2023년 7월	5.25% → 5.50%	경기 성장세는 보통 수준으로 둔화, 누적 긴축 효과도 진행	물가가 여전히 목표보다 높아 6월 동결 후 한 차례 추가 인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금리 레드라인 도달 전후 S&P500(위), KOSPI(아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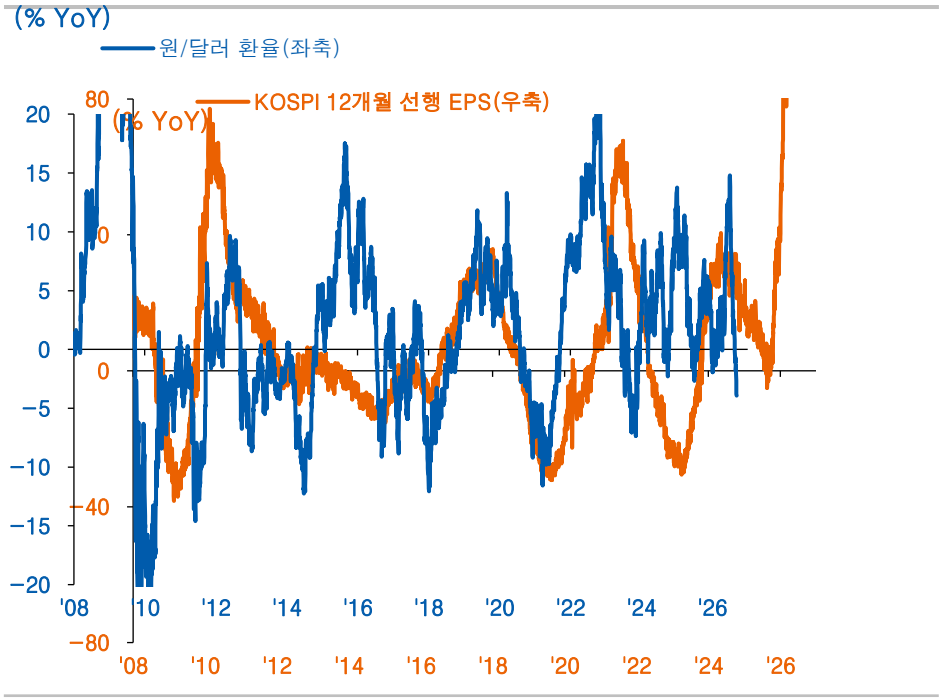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환율) 미국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에는 상방압력, BOJ 추가 인상 시사가 중요

-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달러 강세가 재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다시 상방 압력. 최근 원화가 엔화와 높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BOJ의 추가 긴축 의지가 원화 방향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BOJ의 9월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 중요한 것은 이번 인상 이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강하게 시사하는지 여부. Fed가 추가 인상 경로를 제시한 상황에서 BOJ가 기존의 점진적인 정상화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일 정책금리 격차 축소 기대가 약화되며 엔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

- 이는 국내 증시에도 중요. BOJ의 추가 긴축 신호 → 엔화 강세 유지 → 원화 동반 강세가 이어진다면 최근의 환율 안정 흐름을 지지할 수 있음. 반대로 BOJ가 이번 인상 이후 추가 긴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미·일 금리차 확대 기대 → 엔화 약세 → 원화 약세 → 원/달러 재상승 경로가 재개. 특히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한다면 최근 원화 강세 과정에서 완화됐던 환율발 KOSPI 이익 추정치 하향 우려도 재차 약화될 수 있음. 원화 강세가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만큼, 환율 반등은 반도체 등 수출주의 원화 기준 이익 추정치에는 오히려 우호적인 변수

원/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 우려했던 사람들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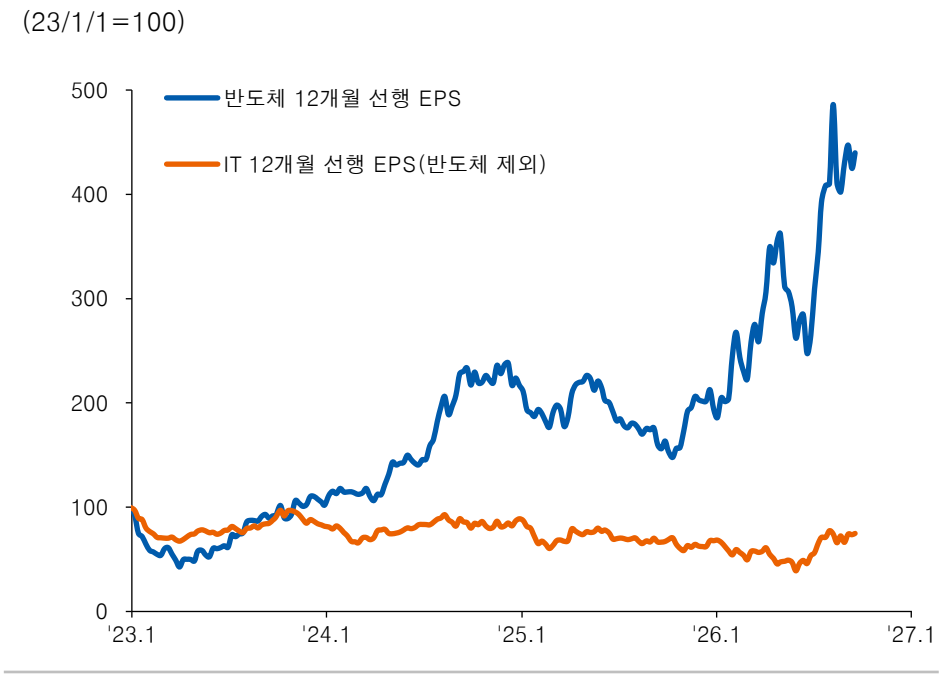
달러 대비 원과 엔은 동조 : BOJ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이후가 중요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략) 찬바람 불땐 배당주? 반도체가 특별배당까지 준다… (배당기준일 9월 30일!)

- 삼성전자: 3분기 약 30조원 현금배당 예정. 주당 약 4,500원 내외로 추정되며, 이번 집행은 약 90~110조원으로 예상되는 2026년 잔여 환원재원의 1차 집행분. 나머지 환원 규모와 방식은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 배당기준일은 9월 30일 수요일, 배당락일은 9월 29일 화요일이기에 ***특별배당을 위해서는 9월 28일까지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하여야 함.*** 추석 연휴 이슈로 거래일 기준 몇일 남지 않은 상황 . 우선주의 경우 특별배당액으로만 9월 17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 2.3%
- 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매입·소각에 이어 주주환원 기준을 2025~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으로 상향. 특별배당과 추가 자사주 환원을 포함한 후속 정책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 예정.

반도체만 외치게 되어버린 이유 : IT 섹터와도 극심한 이익 차별화 지속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역대급 특별배당까지 예고된 삼성전자

특별 배당 사례	2020년	2025년	2026년 3분기 예정
배경	2018~20년 FCF 50% 환원 후 잔여재원 발생	연간 정규배당 외 추가 환원	2024~26년 FCF 50% 환원에 따른 대규모 잔여재원
정규배당	연간 약 9.6조원	연간 약 9.8조원	분기 정규배당 약 2.46조원 수준
추가배당	10.7조원	약 1.3조원	약 27.5조원 추정
분기 총 현금배당	약 13.1조원	약 3.75조원	30조원 내외 계획
보통주 DPS	1,932원	566원	약 4,500원 내외 추정
특별배당분	1,578원 확정	약 200원 추정	약 4,100원 안팎 추정
특징	1회성 대규모	20년 대비 규모 제한적	역대 최대 규모
확정 시점	2021년 1월	2026년 1월	2026년 10월 말 이사회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知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